부산불교박람회 개막 "불교를 일상으로"

8월 7~10일, 벡스코 제1전시장서
선명상·사찰음식 체험존에 북적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asm77@hanmail.net



8월 7일부터 10일까지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5 부산국제불교박람회'의 시작을 알리는 테이프커팅식 모습.

불도(佛都) 부산에서 열리는 '2025 부산국제불교박람회'가 8월 7일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 1홀에서 막을 올렸다. 10일까지 이어진 이번 박람회에는 총 249개 업체가 참여해 372개 부스에서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불교 콘텐츠를 선보였다. 사전등록자도 2만9215명으로 전년도보다 50% 이상 증가해 박람회에 대한 높은 관심을 증명했다. 〈차주 상보〉

개막 첫날인 7일 오전, 행사장 입구에는 입장을 기다리는 시민들로 긴 대기줄이 만들어졌고, 오전 10시 입장이 시작되자마자 전시장 내부는 순식간에 관람객들로 가득 찼다.

특히 선명상 체험존이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의 마음굴림을 비롯해 미타선원의 행복선명상, 홍법사의 싱잉볼 치유 등 다양한 선명상 프로그램이 전문 지도자의 안내로 진행돼, 바쁜 일상에서 잠시 멈추고 마음을 들여다보려는 시민들의 참여가 이어졌다.

사찰음식 체험존에서는 관람객들이 조리 과정을 지켜보며 사찰음식에 담긴 철학과 수행자의 삶을 느꼈고, 일부는 직접 시식하며 소박하지만 깊은 맛에 감탄했다.

젊은 세대의 발길은 불교 굿즈 부스로 집중됐다. '해탈! 깬다!'는 문구가 적힌 에코백과 부처님 캐릭터를 활용한 티셔츠 등 전통과 유머가 절묘하게 만난 굿즈가 MZ세대들의 관심을 끌었다. 현대불교신문 부스에도 관람객들이 모여 응모 이벤트에 참여하고 신문을 살펴보는 등 활발한 소통이 이뤄졌다.

7일 열린 개막식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치사를 통해 "부산은 오랜 역사 속에서 명상과 선 수행의 전통, 사회적 화합의 정신을 지켜온 도시"라며 "청년, 노동자, 약자 등 우리 곁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평등하고 온전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바로 불교의 시대적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은 격려사에서 "명상과 수행, 예술과 공예, 참여와 체험이 어우러지는 다채로운 자리를 통해 불교와 불교문화의 가치가 일상의 언어로, 세대와 계층을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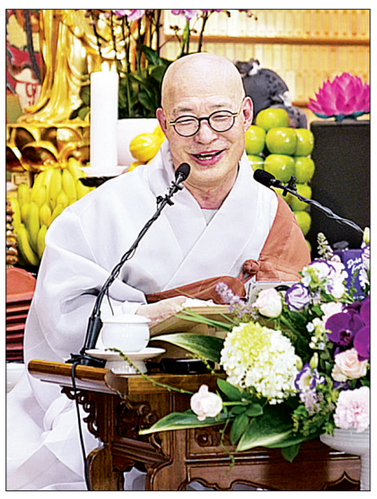
불교방송 이사장 수불 스님은 개회사에서 "부산은 불교 도시를 넘어, 명상을 통해 치유와 평화의 가치를 나누는 세계적 웰니스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며 "박람회를 통해 많은 분들이 마음의 평온과 삶의 통찰을 얻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정총림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은 축사에서 "박람회를 통해 불교의 지혜가 세대와 지역, 국경을 넘어 모두에게 닿고, 팔정도의 가르침이 일상의 삶 속에서 작은 행동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또한 선명상과 평화, 치유의 공감대를 만들어 불자뿐 아니라 시민 모두의 마음에 꽃 피우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람회에서는 8일부터 10일까지 금정총림 범어사 방장 정여 대종사의 법문을 시작으로 베트남 승가회의 경전 이운식, 하경 스님과 도림 스님의 사찰음식 시연, 장산 스님의 영어 법문,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무대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진우 스님, 범어사 백중 법회서 '선명상' 강조

8월 2일, 1500여 명 동참
"수행이 곧 고통 이길 지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사진〉이 8월 2일 금정총림 범어사 설법전에서 열린 '백중지장기도 및 예수재 선지식 초청법회'의 법사로 나서 현대사회의 고통을 치유할 방법으로 '선명상'을 강조했다. 이날 법회에는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을 비롯해 사중 스님과 불자 등 사부대중 1500여 명이 동참해 성황을 이뤘다.

진우 스님은 먼저 대한민국의 사회적 현실을 직시하며 "경제는 세계 13위, 문화도 세계가 주목하는 수준이지만, 정작 우리 국민은 자살률 1위라는 고통 속에 놓여 있다"며 "이러한 고통은 단순한 사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감정이 풀리지 못하고 업으로 쌓인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너무 많이 생각하고, 너무 빨리 살고, 너무 깊이 집착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마음이 병들고 삶이 고달파진다"고 진단했다.

스님은 이 같은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방법으로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5초 명상'을 제안했다. '5초 명상'은 화가 날 때 즉시 반응하지 않고 5초간 멈춤으로써, 감정을 알아차리고 분별을 내려놓는 수행이다. 스님은 "화를 낼 것 같을 때 5초만 멈추고 '쉘 패스(She'll pass), 지나간다'고 마음속으로 되뇌며 감정을 흘려보내는 것만으로도 업장을 줄이고 삶을 가볍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계는 내 마음을 지키는 선이고, 인욕은 괴로움을 지나가는 길"이라고 덧붙이며, 수행이 곧 고통을 이겨내는 지혜임을 강조했다.

진우 스님은 또한 "감정은 업이며, 그 감정은 죽음 이후에도 식(識)에 남아 윤회를 만든다. 몸은 흩어지지만, 마음에 품은 감정은 그대로 아뢰야식에 저장돼 다음 생을 결정한다"며 감정 수행이 곧 삶 전체를 바꾸는 길임을 역설했다.

법회에 앞서 정오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백중은 단순히 조상을 위한 기도를 넘어, 생사에 갇힌 모든 중생을 위한 자비기도"라며 "무더위에도 이 자리에 동참한 불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매년 귀한 법문을 전해주시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께도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범어사는 백중지장기도 기간인 6월부터 9월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설법전에서 선지식 초청 법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후 8월 9일 준한 스님, 8월 16일 광우 스님, 8월 23일 혜총 대종사, 8월 30일 도신 스님, 막재인 9월 6일 정오 스님, 회향 법회인 9월 9일(음력 7월 18일)에는 여산 정여 대종사가 마지막 법문을 전할 예정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불교 자비, 반려동물 복지로 확장되다

대원각사와 민관학불 협약



부산 장산 대원각사(회주 안도 스님)가 반려동물과 보호자를 위한 새로운 복지 모델 구축에 나섰다.

대원각사는 7월 30일 해운대구반려동물협회, 동명대학교 반려동물대학, 메리츠화재 동부산본부와 '반려동물 복지 향상을 위한 4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사진〉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반려동물의 건강과 심리, 교육, 보험까지 포괄하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펫퍼민트' 보험 이용자를 위한 병원·미용실 콘텐츠 제공 △반려동물 심리·훈련·건강 관련 세미나 및 프로그램 운영 △반려동물 천도재와 펫로스 치유 활동 △대학생 서포터즈 및 실습 연계 △유기동물 입양 캠페인 등을 공동 수행한다.

대원각사는 협약을 계기로 그간 꾸준히 이어온 반려동물 추모의식, 천도재, 위패 봉안 등 불교적 치유 활동을 사회 전반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안도 스님은 "이번 협약이 생명존중 문화가 지역사회에 깊이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명상협회, 도심 속 '깊은 쉼' 선사

북항 SUP 페스타서 선명상 체험



부산 해운대 송정 대운사 부설 부산명상협회(회장 주석 스님)가 '북항 SUP 페스타 2025'에서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특별한 명상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깊은 여운을 남겼다.〈사진〉

부산명상협회는 지난 7월 26일에 이어 8월 2일에도 북항 친수공원 내 야외 공간에서 '바디스캔 명상' 프로그램을 열고, 참가자들과 함께 감각을 깨우는 시간을 가졌다. 하루의 열기가 가라앉은 저녁 6시, 참가자들은 그늘 속 매트에 누워 주석 스님의 안내에 따라 몸의 감각에 집중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스캔하며 자신을 바라보는 명상은 크리스탈 싱잉볼의 울림과 어우러져 참가자들에게 깊은 이완과 몰입을 선사했다.

주석 스님은 "몸의 감각을 통해 내면을 비추는 연습이야말로 현대인이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수행"이라고 강조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미소원, 백중기도 회향 백미·기금 전달

복지관 3곳에 쌀 1300kg



사단법인 미소원(이사장 장유정)이 백중기도 회향을 맞아 회원들의 정성을 모아 이웃에게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사진〉

미소원은 8월 5일 법당에서 백중기도 동안 마련한 1300kg를 지역 복지기관에 전달했다. 개금종합사회복지관에 800kg,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 200kg, 부산동구자원봉사센터에 300kg이 각각 지원됐다.

이날 미소원은 지난 산청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 2명에게 각 100만원, 총 200만원의 희망기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장유정 이사장은 "기도와 나눔으로 함께해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인도 다람살라 달라이라마 친견 6일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순례 일정입니다.
11월02일 출발~11월07일 도착(6일 일정)
■ 일정: 인천-델리-암리차르-다람살라-달라이라마 친견(법왕궁)-암리차르-델리-인천
▶ 동참금 : 250만원 (보시금 30만원 별도)

인도 달라이라마 친견 및 인도성지순례 13일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및 인도성지순례 일정입니다.
10월27일 출발~11월08일 도착
■ 일정: 인천-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영축산-나란다대학-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기원정사-암리차르-다람살라-달라이라마친견(법왕궁)-암리차르-델리-인천
▶ 동참금 : 399만원 (보시금 30만원 별도)

중국 실크로드 성지순례 10일
실크로드의 길을 따라가는 순례 일정으로 돈황석굴과 투루판과 우루무치까지 현장법사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최고의 순례 길입니다.
10월10일~10월19일(9박10일)
■ 일정: 인천-서안·법문사·천수(맥적산석굴)-난주(병령사석굴)-장액(대불사)-칠채산-가욕관(만리장성의 서쪽끝)·돈황석굴-투루판(베제크릭천불동)-우루무치(천산천지)-인천
▶ 동참금 : 349만원

중국 구화산, 보타산 6일
지장보살의 도량 구화산과 관세음보살의 도량 보타산 순례
9월10일 출발~9월15일 도착
11월25일 출발~11월30일 도착
■ 일정: 인천-남경-지장보살 구화산-항주-관음보살 보타산-상해-인천
▶ 동참금 : 159만원

중국 보현보살의 도량 아미산, 대족석굴 5일
보현보살의 도량 아미산과 중국 4대 석굴중 하나인 대족석굴, 낙산대불등 사천성 성지순례 일정입니다.
10월22일 출발~10월26일 도착
■ 일정: 인천-성도-대족석굴-낙산대불-3,077미터 아미산 케이블카 등정-성도-인천
▶ 동참금 : 문의

인도,네팔 성지순례 10일
10월23일 출발~11월01일 도착 (인도성지 10일 일정)
11월30일 출발~12월09일 도착 (인도성지 10일 일정)
■ 일정: 인천-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영축산-나란다대학-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기원정사-아그라-델리-인천
▶ 동참금 : 320만원

예약 · 상담 02)720-9600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8, 에스앤에스빌딩 901호
https://maumtour.com/

스리랑카 성지순례 8일
인도양의 진주 아름다운 스리랑카 성지순례
11월26일 출발~12월03일 도착(8일간)
■ 일정: 인천-콜롬보-담불라-아누라다푸라-시기리야-폴론나루와-캔디-누와라엘리야(홍차산지)-갈레-아훈갈라-콜롬보-인천
▶ 동참금 : 문의